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 소비자의 환경위기 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연구

A Study on Pro-environmental Disposal Behavior for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Crisis of Chinese Student Consumer in Korea

Mi Hyun Ryu*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Abstract

Recently, the percentage of Chinese students among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is high. They have difficulty in consumption life in Korea due to difference in cultural or social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y experience disposal problem due to difficulty of playing the role of consumer as disposer in Korea since there exists difference in separate collection of wastes or recycling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environmental disposal intention and disposal behavior of Chinese student consumer in Korea and to present the plans to improve this. The following are the main results of analysis. First,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recognized it very serious by recording the recognition level of environmental problem severity at 4.47(full marks of 5point). Second, the level of Pro-environmental disposal behavior of Chinese student consumer in Korea was moderate, absolutely not high so that they experienced difficulty in disposal. Third, pro-environmental disposal intention was found to be variable predicting the disposal behavior.

Key words: environmental crisis, environmental problems, pro-environmental disposal intention, pro-environmental disposal behavio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450-0426. Fax. +82-2-450-4084. E-mail. mihyun99@konkuk.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Feb. 5, 2014 / Revised: Apr. 14, 2013 / Accepted: Apr. 25, 2013

국문초록

최근 한국내 거주하는 유학생 중 중국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들은 문화적, 사회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내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시스템이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 내에서 처분자로서 소비자역할을 하는데 어려움 등으로 처분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파악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은 환경문제심각성 인식 수준은 4.47(5점 만점)로 상당히 높았다. 둘째,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수준은 보통정도였지만 절대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처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는 처분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와 처분행동과의 관계에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환경위기, 환경문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1. 서론

우리나라에 2013년 11월 현재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84,725명 정도이며, 그 유학생중에서 중국 유학생 수가 54,812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65%정도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13). 중국 유학생들은 언어와 인간관계, 타문화에 대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학생살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학생할 내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알려졌다(임춘희, 2009). 이러한 스트레스는 한국 내에서의 중국유학생들의 소비생활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생활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최명 외, 2012) 소비생활 중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대량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고도산업사회에서 소비자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운 생활은 과다소비, 자원낭용, 과다 쓰레기 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초래하여 환경 위기를 맞게 되었다. 환경을 파괴하는 많은 요인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재이용, 재활용, 환경 친화적 쓰레기 처리 등 소비자의 책임 있는 소비생활이 더욱 중요함이 대두되고 있다(허경옥, 2005). 특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인 중국은 개혁과 개방 이후 약 30년 가까이 연평균 10%에 이르는 고도성장과 공업화,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소비행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동시에 지역·계급간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우양, 2010).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은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관리마저 미숙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 주요 도시를 위주로 분리수거 관련 법령 및 벌금형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분리수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주간무역, 2013). 유리와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분리수거를 하고

반드시 해당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그동안 중국은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아무 비닐 봉투에나 담아서 버리면 되었다. 비닐봉투 유료화에 이어서 중국은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많은 편이다(이코노믹리뷰, 2013).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잦은 외식, 대접받은 음식물을 남기는 것이 미덕인 식습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다(주간무역, 2013). 이처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쓰레기 처분방식이 다르고 소비생활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의 경우 처분자로서의 소비자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내 거주하는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처분행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처분행동은 유학생소비자들 자신에게도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며, 환경측면에서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과 함께 환경위기를 초래하는데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내 거주하는 유학생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및 처분행동을 파악하고 올바른 처분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 처분행동을 파악한 연구는 다양한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한 한국과 중국의 환경관련 비교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한국내 유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소비생활 측면의 적응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고, 특히 소비행동 중 처분문제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학생소비자들의 경우 자신 가정이 아닌 기숙사, 하숙, 자취 등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처분자의 역할 습득과 행동은 중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내 거주하는 중국유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첫째,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환경친화적 처분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한다. 둘째,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분리수거, 재활용행동으로 구분하여 현재 수준을 살펴보고 셋째, 환경문제관련 변수들이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매개로 처분행동에 어떠한 인과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넷째,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처분지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관련 행동을 높이기 위한 환경관련 소비자교육 실시 및 정보제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아울러 한국거주 유학생들의 한국 내 적응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기초자료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내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처분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환경문제발생 및 심각성인식

환경문제의 발생은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산업화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자원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생태파괴의 문제이다(원동욱, 2006). 즉 환경문제란 일반적으로 생산-소비-처분의 전 과정에서 대량의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환경 정화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문제로 귀착되는 현상이다. 공해라 불리는 환경오염 뿐 아니라 환경파괴를 비롯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로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공해 그리고 천연자원이나 에너지자원 등의 자원이고갈이 인간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뜻한다. 또한 생태계의 파괴 또는 인간 생활의 질의 저하나 생존 위협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환경오염과 자원이고갈 등이라고 할 수 있다(황기아·천재은, 2004). 결국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환경훼손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천연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가 가속화됨으로서 공해물질의 급증, 대기오염의 심각화 등으로 인한 지구자정능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고갈,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최은진, 2007).

이러한 환경문제는 사회의 산업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소비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지향적 물질주의는 생산력이 증대되어 다양한 소비재의 사용이 가능해지자 사회적 관심은 소비지향적인 쾌락적 물질주의가 더 뚜렷한 사회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박현희·오송대, 2005). 또한 산업화 사회의 특징인 물질주의적 가치는 소비자들의 소비관행을 지나치게 자원낭비로 흐르게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일상적인 가정 쓰레기의 처분활동은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김은희, 2007). 실제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심각성 인식정도를 파악한 오진숙·김정숙(2011)의 연구를 보면 청소년소비자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문제였고, 그 다음은 자원낭비문제, 해양오염, 자연환경파괴, 공기오염, 농약·중금속오염, 소음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시는 물의 오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주연·이연숙(2010)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중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자원 및 에너지 고갈은 다른 오염에 비해 인식이 높았지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자원 및 에너지 고갈은 다른 오염에 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거라 하였다. 이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의식도 급격히 변화되어 과거 환경문제를 정부 측에서 해결해야 한 다는 생각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점차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Peattie, 2001). 즉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의식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최경하, 2009).

한편 중국에서도 최근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문제는 성장의 대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이에 대한 생각이 회의적으

로 변화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서슴없는 비판이 증가되고 있다(LG경제연구소, 2013).

선행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의 확대로 더욱 심각해지므로 소비자들의 부적절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으로 인해 환경위기에 직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비교적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와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환경 위기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2. 환경위기 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환경친화적 행동이란 소비의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고 개인의 욕구뿐 아니라 사회의 복지까지 고려하는 소비이며, 제품의 구매단계, 사용단계, 처리단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박운아·이기춘, 1995). 이 중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은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고 오랜 기간 환경보호를 장려할 수 있는 쓰레기의 처분을 위한 가장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Haron, *et. al.*, 2005).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해 친환경소비, 녹색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보전적소비, 환경의식적소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는 스스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권익을 옹호하며, 산업 활동에 대해 비판하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책임 있는 환경의식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환경행태는 기본적으로 환경적 자각을 지각, 인지하고 태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박희서 외, 2007).

환경친화적인 소비행동인 환경친화적 구매-사용-처분 등의 행동 중 최근에는 처분행동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구매, 사용행동을 하는 과정보다는 처분행동의 경우 소비자의 주체적인 능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은진, 2007). 또한 처분행동에서 소비자는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재정적인 비용을 요구 받게 된다. 따라서 처분행동은 소비자 자신의 가치신념과 환경의식에 의해 실천되는 행동이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처분행동은 자신의 신념과 같은 내부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만족이 가장 크게 작용 한다(Hopper & Nielsen, 1991).

특히 소비자의 적극적인 재활용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자연자원 절약,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국내 자원의 절약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외자절약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환경보호 의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생활양식이 다양화되면서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와 질의 악성화·고질화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김은희, 2007). 따라서 소비자들의 처분자로서의 역할

은 점차 중요시 되고 있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행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각 도시가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2000년부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가 시행됐지만 시민의식 부족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연합뉴스, 2013). 이처럼 중국은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환경친화적인 처분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거주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익숙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우리나라 소비자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생소비자의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최은진, 2007; 유두련, 2013)를 보면 유두련(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친환경 소비행동 중 처분행동은 3.30정도로 나타나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최은진(2007)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환경의식적 행동 중 처분행동이 평균 3.85 정도로 나타났으며, 분리수거행동 중에서도 분리수거가 용이한 플라스틱, 깡통, 종이의 분리수거행동이 건전지의 분리수거행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은진(2007), 김경미(2005)의 연구 모두 대학생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행동 중 처분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과 관련된 행동으로 주로 처분행동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교육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최은진, 2007). 한편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목건문(2010)의 연구에서 보면 처분행동 중 ‘알뜰시장, 벼룩시장, 녹색가게, 재활용센터 등 시설을 적극 이용 한다’ 등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하늘(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처분행동은 평균 4.1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국의 대학생들은 평균 3.50정도로 나타나 한국대학생들의 처분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중국의 대학생소비자들의 경우는 한국 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처분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한국내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처분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의 영향요인

다음에서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해보고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처분행동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중국유학생 대상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파악한 연구는 없으므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처분행동을 파악한 연구로 확대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환경문제 관련 변수

첫째, 환경문제심각성인식 변수와 처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면 환경문제심각성 인식변수는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의 관련 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이승신 외, 1993; 박명희·정주원, 1995; 민현선·이기춘, 1999; 김시월, 2003). 특히 김시월(2003)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심각성인식은 환경친화적 행동인 적극적인 재활용, 리필제품사용, 절약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처분적지식과 환경친화적 처분행동과의 관련성을 보면, 우선 환경관련 지식이란 환경보전 능력의 구성요소 중 인지적 영역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문제에 관련된 사실, 개념, 관념(이승신 외, 1993)등으로 이 중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이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처분행동에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최은진, 2007; 유두련, 2002; 유두련, 2012; 이용기 외, 2010; 전해진 외, 2012)에서 지식은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그 중 최은진(2007)의 연구에서도 환경지식은 처분행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유두련(2002)의 연구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식은 재활용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유두련(2012)의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녹색소비 처분행동에 대한 영향력 분석결과 녹색소비 지식이 높을수록 녹색소비 처분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소비지식의 하위변인 중 녹색상품을 구분할 수 있거나 에너지 절약방법이나 재활용품 및 음식물의 분리배출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소비생활 관련 지식이 녹색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기 외(2010)의 연구에서도 환경에 대한 객관적지식의 경우는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또한 환경에 대한 정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지식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직접효과는 없고 환경에 대한 정서를 통해 간접효과만이 나타났다. 전해진(2012)의 연구에서도 환경관련 사전지식(거시적 지식, 제품관련지식)요인이 소비자의 처분행동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보면 환경과 관련된 지식은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천하는데 있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환경처분지식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환경교육경험과 환경친화적 처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노채영, 1991; 김진동, 2005; 목건문, 2010)에서 환경교육경험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이나 처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건문(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교육여부에 따라 처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국소비자들의 경우에도 녹색소비교육을 받은 경우가 녹색소비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행연구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적 소비행동을 한다. Weigel & Weigel(1978)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관련 행동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환경관심을 포함하는 환경관여도는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최은진

(2007)의 연구에서는 처분행동과 관련된 환경관여도에 있어 환경에 대한 흥미로움과 관심보다는 환경을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여가 처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믿는 정도, 관련 준거집단 혹은 준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주관적 규범이 호의적일수록 그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유두련(2012)의 연구에서 가족·친구·지역사회 등 준거집단의 녹색소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결과적으로 녹색소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서 외(2007)의 연구 결과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아일치성은 개인이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스스로 가지는 하나의 심상으로 일단 자아개념이 발달하면 스스로가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각은 개인의 현재 위치, 개인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고취와 성취의 방향으로 지각을 통합하는 일치정도로 볼 수 있다(이상희, 2008). 따라서 환경관련소비에 대한 자아일치성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재욱(2011)의 연구에서 자아일치성이 낮으면 보편적 자아성향이 녹색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보면 이은희·박상미(2000)의 연구에서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분리수거 행동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는 이 행동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으며, 유두련(2012)의 연구에서 녹색소비태도는 처분행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금지현(2013)의 교육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경태도가 녹색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환경친화적 소비 태도의 함양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환경관련변수인 환경문제심각성 인식, 환경친화적 처분지식, 환경교육경험, 관여도, 주관적 규범,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자아일치 등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2)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변수

행위의도란 개인의 예기된 혹은 미래의 행동을 뜻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의도는 보다 정확하게는 주어진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진 행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행동 의도는 실제행동과 가장 근접한 영향요인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된다(Ajzen, 1991).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Fishbein & Ajzen(1975)이 주장한 것처럼 행위의도가 실제행동을 결정한다

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은희(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행위의도가 재활용 행동예측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은희(2004)의 연구에서도 쓰레기 감량의 행태의도가 감량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행위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행위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행태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는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변수가 될 수 있으며, 그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어 변수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수준을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또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작성하였다.

- [연구문제 1]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문제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환경문제관련 변수가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매개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및 척도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그 구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환경문제관련 변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변수는 성별, 연령, 학교급, 한국 거주기간을 파악하였다. 학교급은 중국 유학생소비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대학원, 어학원 등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환경문제관련 변수는 환경문제심각성 인식, 환경친화적 처분지식, 환경교육경험, 관여도, 주관적 규범, 자아일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등으로 하였다. 환경문제심각성인식 변수는 강호봉(2006), 최경하(2009)의 연구를 기초로 '환경오염이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

제의 심각함' 등과 관련된 인식 문항으로 총 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은 처분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지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주관적 지식을 파악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myx,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그린제품의 구매의도를 예측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지식보다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윤성욱 외(2006)와 이용기 외(2010)의 연구에서도 환경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환경친화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환경교육경험은 중국유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관여도는 Zaichkowsky(1994), 최은진(2007)의 연구를 기초로 환경에 맞는 5문항만을 선정하여 환경은 나에게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관심이 있다, 흥미롭다, 관련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총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Fishbein & Ajzen(1975), 김은희(2007)의 연구를 기초로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등의 2문항을 5점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자아일치변수는 신재욱(2011)의 연구를 기초로 '환경친화적 소비는 나와 잘 어울린다,'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은 나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다,' '환경친화적 소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반영한다,' 등의 3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환경친화적 소비태도변수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는 현명한, 바람직한, 즐거운, 가치 있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Fishbein & Ajzan(1975), 박희서 외(2007), 김은희(2007) 등의 연구를 기초로 총 5문항을 작성하였다.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는 환경을 고려한 재활용 행동의도와 분리수거 의도 등으로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친화적 처분행동변수는 주로 분리수거에 대한 문항으로 현재 어느 정도 환경친화적인 처분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변수로 Mobley, et. al.(2010), 이하늘(2011), 김경미(2005), 최경하(2009), 공혜원(2010), 최은진(2007) 등의 연구를 기초로 총 3문항을 작성하였다.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타당성부분에서 살펴보면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0.5이상으로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우종필, 2012)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요인 부하량이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 파악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요인부하량	h ²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 등 분리수거	.81	.50
음식물쓰레기 등의 분리수거	.74	.66
건전지 분리수거	.71	.55
고유치	1.71	
전체 변량	57.12	
누적 변량	57.12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표 2>에서 Cronbach'a에 의하여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환경문제심각성 인식 $\alpha=.91$, 환경친화적 처분지식 $\alpha=.80$, 관여도 $\alpha=.88$, 주관적 규범 $\alpha=.91$, 자아일치 $\alpha=.8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alpha=.92$,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alpha=.80$,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alpha=.71$ 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표 2> 설문문항의 신뢰도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환경문제관련 변수	환경문제심각성인식	2	.91
	환경친화적처분지식	2	.80
	관여도	5	.88
	주관적 규범	2	.91
	자아일치	3	.8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5	.92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2	.80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3	.71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경우는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30명의 중국유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있으므로 중국어로 작성하였으며,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조사는 2013년 10월 2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대학원,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총 400부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총 36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실증연구 검증 시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특성, 환경문제관련변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연령, 학교급, 거주기간을 보았다. 성별은 여학생(58.2%)이 남학생(41.8%)보다 더 많았으며, 연령은 21-25세가 65.3%로 가장 높았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23세 정도였다. 또한 학교급을 보면 대학(55.5%)에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학원(27.0%), 어학원(17.5%)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의 한국 평균 거주기간은 약 30개월 정도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66(100)

변수	집단	N(%)
성별	남학생	153(41.8)
	여학생	213(58.2)
연령	20세 이하	86(23.5)
	21-25세	239(65.3)
	26세 이상	41(11.2)
	평균(표준편차)	22.56(2.50)세
학교급	대학	203(55.5)
	대학원	99(27.0)
	어학원	64(17.5)
한국 거주기간	12개월 이하	98(26.8)
	13-24개월	61(16.6)
	25-36개월	81(22.2)
	37개월 이상	126(34.4)
	평균(표준편차)	30.28(22.12)개월

IV. 연구결과

1.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문제관련 특성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관련 특성을 크게 환경문제심각성 인식, 환경친화적 처분지식, 환경교육경험, 관여도, 주관적 규범, 자아일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은 환경문제심각성인식 정도가 평균 4.47정도로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어 중국유학생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환경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경우 평균 3.50으로 나타나 유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은 보통정도의 처분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 내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0%정도로 환경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74.0%)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 중국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환경교육경험을 많이 받지 못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최은진(2007)의 연구에서 한국대학생소비자들의 환경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38.7%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관련 교육이 소비자단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며, 아울러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환경에 대한 관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과 관련하여 주관적 규범은 평균 3.39, 자아일치 평균 3.61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수준은 평균 4.22정도로 친환경적 소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은 친환경소비를 하는 것이 가치 있고 현명하며, 바람직하고 즐겁고, 올바른 일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4> 환경관련 특성

변수	평균(표준편차)
환경문제심각성인식	4.47(.79)
환경친화적 처분지식	3.50(.79)
환경교육경험 ^{a)}	있음 95(26.0) 없음 271(74.0)
관여도	4.17(.73)
주관적 규범	3.39(.79)
자아일치	3.61(.86)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4.22(.76)

※ a) n(%)임

2.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및 처분행동

1)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및 처분행동 수준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및 처분행동 수준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처분의도는 전반적으로 평균 3.90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3.31정도이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제시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유학생소비자들은 현재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는 있지만 실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적극적으로 잘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위 문항을 볼 때,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 등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등의 분리수거 등의 행동이 건전지 분리수거 등의 처분행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5>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 및 처분행동 수준

변수		평균(표준편차)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		3.90(.84)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 등 분리수거	3.11(1.23)
	음식물쓰레기 등의 분리수거	3.29(1.07)
	건전지 분리수거	3.54(1.10)
	전체	3.31(.85)

2)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한국 거주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VIF값을 본 결과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를 설명 변수로 하였으며, 독립 변수 중 환경교육경험(경험 없음 기준)은 가변수화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6>.

중국 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환경친화적 소비태도($\beta=.37$)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아일치($\beta=.27$), 주관적 규범($\beta=.19$), 환경문제심각성인식($\beta=.13$) 순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친화적 소비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일치성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중국 유학생소비자일수록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규범을 높게 인식할수록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가 높은 것은 박희서 외(2007)의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인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42.0%였다.

중국 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beta=.23$)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아일치($\beta=.22$), 환경친화적 소비태도($\beta=.12$), 주관적 규범($\beta=.11$)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처분 의도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높게 하였으며, 그 외 환경친화적 소비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거나 어울린다고 인식하는 자아일치나, 주변인을 의식하고 주변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주관적 규범이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인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9.0%였다.

<표 6>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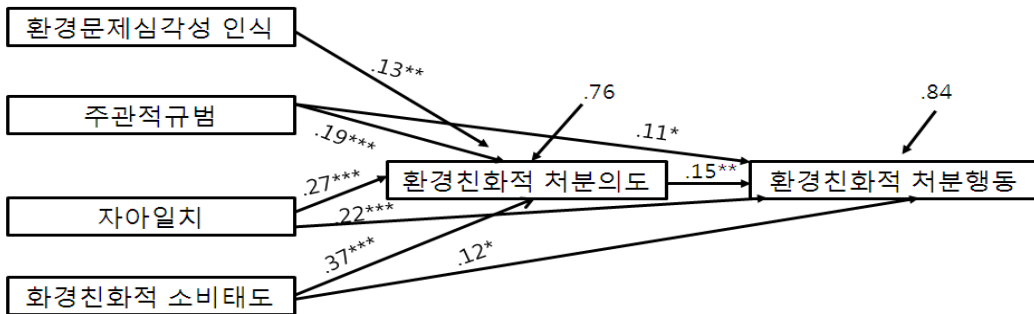
변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B(β)	B(β)
환경문제심각성인식	.13(.13)**	.02(.02)
환경교육경험(있음)	.02(.01)	.01(.01)
관여도	-.06(-.05)	.03(.03)
주관적 규범	.20(.19)***	.12(.11)*
자아일치	.27(.27)***	.22(.22)***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41(.37)***	.14(.12)*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24(.23)***
R2	.42	.29
상수	.20	.41
F비	42.90***	20.65***

※ *p < .05, **p < .01, ***p < .001

dummy 변수: 기준 - 환경교육경험(없음)

3)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 거주 중국 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경로분석에 포함된 관련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VIF값을 본 결과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나타난 변수는 없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중회귀 분석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인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인과순서 및 순환체계를 가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결과 중국 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추출하였으며, 경로분석에 사용된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p < .05, **p<.01, ***p<.001

<그림 1>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대한 경로분석모형

<표 7>은 인과모형에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중국 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직접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로 나타났다. 즉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주관적 규범, 자아일치, 환경친화적 처분태도 변수는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직접효과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매개로 간접효과도 있었다. 셋째,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환경문제심각성인식 변수는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매개로 간접효과만이 있었다. 즉 환경문제심각성인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문제심각성을 인식한다 해도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분의도의 형성을 통하여 처분행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의 변수들 중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총 인과적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자아일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주관적 규범, 환경문제심각성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인과 모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분산의 29.0%를 설명할 수 있다.

<표 7>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변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적효과	총효과
환경문제심각성인식		.03	.03	.18
주관적 규범	.11	.04	.15	.31
자아일치	.22	.06	.28	.41
환경친화적 소비태도	.12	.09	.21	.37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23		.23	.46

3.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친화적 지식의 조절효과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았으며,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 즉 ‘각 케이스의 변수의 값-해당 변수의 평균 값’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변수로 투입한 모형 1에 비해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을 투입한 모형 2에서 설명력이 5.6%로 증가하였으며, 모형 3에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와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5%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

적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으로 연결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환경처분방식이 다르므로 인해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처분지식의 부족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상수	1.505		.965		.689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46	.46***	.35	.35***	.39	.38***
환경친화적 처분지식			.28	.26***	.30	.28***
환경친화적처분의도*환경친화적 처분지식					.17	.17***
R ²	.207		.263		.288	
ΔR^2			.056		.025	
F비	95.27***		64.82***		48.78***	

※ ***p<.001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유학생들은 문화적 사회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 내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 내에서 처분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파악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수준은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높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유리, 캔, 플라스틱, 종이와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등의 분리수거에 대한 처분행동은 높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처분행동은 중국의 처분행동에 비해서는 까다롭고 철저히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행동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한국대학생들의 처분행동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김진동, 2005; 최은진, 2007; 이하늘, 2011) 본 연구 결과 중국유학생 소비자들의 처분행동 수준이 높지 않음은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처분행동의 어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중국어로 된 간단한 팸플릿 등의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분리수거 등의 처분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욱 바람직한 처분행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유학생소비자들의 경우 한국 대학생들과는 달리 한국에 거주하면서 음식물 등의 생활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배출해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생활쓰레기 등과 관련하여 처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는 처분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환경친화적으로 처분행동을 하고자하는 의도를 높이 인식함이 필요하리라 본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제 처분의도만큼 처분행동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유학생소비자의 환경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경우 환경친화적 지식의 향상은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으로 연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환경처분방식이 다르므로 인해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소비자 자신이 환경에 대한 처분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높게 하는 것이다. 이용기 외(2011)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갖게 되는 주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각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가치가 친환경 제품의 구매절차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주관적 지식을 기초로 지각하는 환경친화적 처분에 대한 가치는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환경지식의 경우 환경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고 실천을 도모하는데 기초가 되며, 소비자가 환경에 조화되는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적절한 지식이 없다면 친환경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윤성욱 외, 2006). 따라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을 높이는 것이므로 한국의 처분방식에 대한 환경관련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중국유학생들의 한국 내 환경교육은 낮은 편이므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처분행동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친화적 처분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경우 환경문제심각성 인식은 처분의도를 매개로만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심각성 인식변수는 직접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환경친화적 의도에 영향을 미쳐 환경친화적 처분의도가 형성된 후 처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처분의도와 처분행동간의 관계에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므로 환경문제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처분의도가 높고 또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이 높을 경우 처분의도가 처분행동으로의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변수는 간접적이지만 결국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아울러 환경친화적 처분의도 형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가치 있고 올바른 행동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을 높인다면 결국 환경문제심

각성 인식은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주관적 규범이나 자아일치 등이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하는데 있어 주변인의 영향이나 자신과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과의 이미지의 적합성 등 사회심리적인 요소도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친구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유학생소비자들의 올바른 처분행동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한국 대학생들의 처분행동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능력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은 자신의 삶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자아일치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TV 등 매스컴을 통한 공익광고 등의 지속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대학교, 대학원, 어학원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실제 중국유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한국내 거주하는 모든 중국유학생소비자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중국유학생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이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변수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학교기숙사, 자취, 고시원, 하숙 등의 거주형태에 따라 처분행동에 영향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에 있어서 실제 어려움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처분행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조사 등의 질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친화적 처분지식을 파악하는데 있어 대학생들의 주관적 지식만을 파악하였으므로 실제 처분지식을 정확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소비자들의 처분행동을 한국 대학생소비자들과의 비교를 위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유학생들이 처분행동과 관련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호봉. 2006.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제품이미지와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혜원. 2010. 가치관, 소비가치 및 환경의식적 행동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지현. 2013.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녹색소비자행동과 환경지식 및 환경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1(1): 89-95.
- 김경미. 2005.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의식과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월. 2003. 청소년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6): 106-117.
- 김은희. 2004. 쓰레기 감량행태의 영향요인 분석: 계획행태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2007. 소비자의 재활용 태도 및 행동의 이해: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9(3): 501-525.
- 김진동. 2005. 대학생의 환경관과 환경행동: 관광과목 수강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4): 357-375.
- 노채영, 신희식, 조혜정. 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49-62.
- 목건문. 2010. 한국과 중국소비자의 녹색소비의식과 녹색소비행동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선, 이기춘. 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 박명희, 정주원. 1995. 소비자 처분행동 유형과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가사용 내재의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22-34.
- 박운아, 이기춘. 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박현희, 오송대. 2005. 물질주의 성향과 환경의식이 의복의 재활용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0): 167-177.
- 박희서, 노시평, 김은희. 2007.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합리적 행동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2): 97-119.
- 법무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 11월호.
- 신재욱. 2011. 소비자들의 자아, 성향이 친환경심리 및 녹색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자아일치성, 소비자의 지식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주연, 이연숙. 2010. 청소년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2): 45-60.
- 연합뉴스. 2013. 쓰레기에 신음하는 중국 도시들. 2013. 7. 19.
- 오진숙, 김정숙. 2011. 환경문제 관련 요인이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1): 19-42.
- 우양. 2010. 대형 할인점의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소비자비교를 중심으로.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두련. 2002. 재활용 행동 집단별 소비자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53-67.
- 유두련. 2012. 대학생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4): 1-24.
- 유두련. 2013. 자아존중감에 따른 친환경의식과 친환경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 9(3): 85-106.
- 윤성욱, 양연조, 노정구, 전중욱. 2006. 환경지식이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11(3): 131-147.
- 이상미. 2008. 자아일치성과 기능적일치성 중심의 관광목적지 선택행동에 관한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신, 이해임, 류미현. 1993.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능력. *소비자학연구*. 4(2): 73-96.
- 이용기, 최정구, 김민성. 2010. 환경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지식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대한 정서의 매개역할. *경영학연구*. 39(5): 1177-1198.
- 이은희, 박상미. 2000.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및 분리수거에 대한 태도와 행동:인찬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3(3): 97-128.
- 이코노믹리뷰. 2013. 中, 쓰레기 처리요금 부과 찬반 엇갈려.... 2013. 2. 28.
- 이하늘. 2011. 한국과 중국 대도시 여성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LG경제연구소. 2013. 환경민감도 높아지고 있다. 44: 29-38. *China Insight*.
- 원동욱. 2006.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환경정책연구*. 5(1): 45-70.
- 전해진, 천세학, 변용환. 2012. 환경의식과 환경지식이 소비자의 녹색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30(7): 13-18.
- 주간무역. 2013. 많이 먹는 중국,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치우나?. 2013. 5. 19. <http://www.weeklytrade.co.kr>
- 최경하. 2009. 그린소비자의 환경의식 및 소비행동 분석과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 류미현, 이승신. 2012. 한국인터넷쇼핑몰 구매과정에서의 소비자만족도와 재구매의도: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 소비자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05-117.
- 최은진. 2007. 가치, 환경지식 및 환경관여도가 환경의식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소비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경욱. 2005. 구매, 사용, 처분단계에서 소비자의 환경보전행동 결정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81-94.
- 황기아, 천재은. 2004. 중학생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7(4): 99-113.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myx, D. A., P. F. Dejong, X. L. Lin, G. Chakraborty, and J. L. Wiener. 1994. Influencers of

- Purchase Intentions for Ecologically Safe Products: An Exploratory Study. C. W. Park and D. L. Smith. eds. *AMA Winter Educators' Conference Proceedings*.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 Fishbein, M.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Haron, S. A., L. Paim, and N. Yahaya. 2005. Towards Sustainable Consumption: An Examination of Environmental Knowledge among Malays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9(5): 426-436.
- Hopper, J. and J. Nielsen. 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23(2): 195-220.
- Mobley, C., W. M. Vagias, and S. L. DeWard. 2010. Exploring Additional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ly Attitudes. *Environment and Behavior*. 42(4): 420-447.
- Peattie. K. 2001. Golden Goose or Wild Goose? The Hunt for the Green Consumer.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0(4): 187-199.
- Weigel, R. and J. Weigel. 1978. Environment Concern: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Environment and Behavior*. 19(1): 3-15.
- Zaichkowsky, J. L. 1994. The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 Reduction and application to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23(4): 59-70.

류미현: 건국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소비자문제 및 불만족에 따른 대응행동. 1997), 현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소비자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부 전공분야는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등이며, 소비자교육과 정보, 소비자사회와 소비문화 등의 저서와 '대학생소비자의 즉석섭취식품 구매시 안전추구행동', '국가이미지가 수입식품안전인식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소비자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 (mihyun99@konkuk.ac.kr).